

## 조선후기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대한 지식의 축적

박상휘\*

1. 서론
2. 히데요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형성
3. 히데요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형성
4. 다이부쓰지(大佛寺)에 대한 지식의 축적
5. 결론

### <국문 초록>

본고는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문인들의 기록을 대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는 과정 및 히데요시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탐구한 것이다. 조선 국내에서는 히데요시가 누군지에 대한 지식이 아주 미약했던 반면, 일본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문인들 및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문인들은 히데요시가 어떤 인물인지, 일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 사행록을 시대 순으로 검토하면서 히데요시에 대한 인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통시적으로 규명하였다.

첫째로 히데요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사행원들은 분열된 상태에 있던 일본을 통일하고 엄격하게 통치하였다는 이유로 히데요시의 정치적 공적을 칭송하는 일본인들이 있음을 기록하였고, 히데요시가 죽은 후 일본인들이 신사를 만들어 신으로 모시고 있음을 발견하였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다. 또 사행원들은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이룩한 정치적 공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를 진시황과 항우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둘째로 히데요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살펴보았다. 도요토미 정권하의 일본을 견문한 사행원들은 히데요시의 포악한 정치 때문에 일본인들도 히데요시를 미워하고 있음을 묘사하였다. 에도시대에 들어서도 일본인들이 히데요시의 가혹한 정치에 대해 여전히 원한을 가지고 있고,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으로 인해 일본 백성들도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조차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기록하였다.

셋째로 히데요시가 대불을 건설하기 위해서 세운 다이부쓰지(大佛寺)에 대한 지식이 축적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이부쓰지 바로 앞에는 조선에서 가져온 귀와 코를 모아 세운 미미즈카(耳塚)가 있었는데, 1719년 사행 때 다이부쓰지에서 연회를 열자는 일본 측의 제안을 사행원들이 거부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행원들은 다이부쓰지가 어떤 곳인지를 자세히 연구하였다. 원중거(元重擧)는 다이부쓰지를 창건한 배경에 신도를 숭배하는 일본인의 종교적 관습이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하였다.

사행원들은 일본에서의 견문을 통해 히데요시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식을 축적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일본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당초 사행원들은 히데요시를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로 감정적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히데요시에 대한 지식이 점차 축적됨에 따라 히데요시를 냉정한 눈으로 봄으로써 상대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핵심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조선통신사, 다이부쓰지(大佛寺), 사행록, 미미즈카(耳塚)

##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문인들의 기록을 대상으로 삼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는 과정

및 히데요시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탐구하는 데에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전국시대의 무장(武將)으로 오와리(尾張) 아이치 군(愛知郡) 나카무라(中村), 지금의 아이치 현 나고야 시(名古屋市)에서 하급무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에 고용되어 수많은 전공(戰功)을 세우면서 이례적인 속도로 승진을 거듭하였다. 당초 기노시타(木下)라는 성(姓)을 사용했다가 나중에 하시바(羽柴)로 바꾸었으며, 노부나가의 사후 권력을 장악하자 도요토미(豊臣)로 바꾸었다. 1582년 오다 노부나가가 교토(京都) 혼노지(本能寺)에서 모반으로 살해당하자 곧바로 군대를 거느리고 모반을 일으킨 아케치 미쓰히데(明智光秀, 1528~1582)를 토벌하였다. 노부나가의 사후, 후계자 다툼에서 승리를 하여 주도권을 장악하자 1585년 간파쿠(關白: 천황 대신해 정치를 관장하는 벼슬로 실질적인 최고 통치권을 가진 자)에 올랐다. 국내의 대립 세력을 잇달아 물리치며 각 지방의 영주들을 지배하에 두고 일본 전국을 통일하였다. 병농분리(兵農分離: 병사와 농민의 신분을 확실히 분리시키는 일), 무기의 몰수, 토지조사와 세금제도의 정비 등 대규모의 정치개혁을 단행하였다. 1592년과 1597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에 군대를 보내 전쟁을 일으켰다. 1598년 8월 18일 62세 때 교토 후시미 성(伏見城)에서 병사하였다. 히데요시의 죽음을 계기로 조선에 있던 일본군은 철수하였다. 농민 신분에서 출발하여 국가의 최고 자리에 오른 일은 일본 역사상 흔치 않는 일이었다. 에도 시대에는 몇 가지의 히데요시에 대한 전기와 더불어 그의 생애를 묘사한 그림책이나 대중적인 문예작품이 간행되어 신분 상승을 동경하는 풍조와 연결되면서 널리 읽혔다.<sup>1)</sup>

히데요시는 메이지(明治) 유신을 계기로 일본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도쿠가와(徳川) 막부 말기의 역사가 라이 산요(賴山陽, 1781~1832)는 일본의 역사를 정리한 역사서 『일본외사』(日本外史)를 저술하였다. 이 책은 막부 말기에서 메이지 유신에 걸쳐 일본에서 가장 널리 읽혀 존황도막(尊皇倒幕)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라이 산요는 이 책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1) 國史大辭典編輯委員會, 『國史大辭典』, 東京: 吉川弘文館, 1989, 제10권, 458~459면의 '豊臣秀吉' 항목 참조.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오호라, 만약 다이코(太閤: 히데요시를 말함-인용자)<sup>2)</sup>를 하여금 여직(女直)과 말갈(靺鞨) 사이에 탄생하게 하여 그를 더욱 오래 살게 하였더라면 어찌서 명나라를 멸망하는 데에 각라(覺羅: 청나라를 세운 愛新覺羅氏를 말함)를 기다릴 필요가 있었겠는가? 생각건대 그의 사람됨은 진시황과 한나라 무제를 닮았고 그의 웅재(雄才)와 대략(大略)은 그 두 명보다 훨씬 뛰어나다.<sup>3)</sup>

라이 산요는 이와 같이 군주로서의 히데요시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도쿠가와 막부 말기의 대표적인 역사가가 이와 같이 히데요시를 보고 있었던 만큼, 이 말은 그 당시 일본 지식인의 히데요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메이지 시대의 일본에서 천황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의 정비 및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부정의 움직임과 연동되면서 히데요시의 역사적 공적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히데요시는 메이지 초기에는 조정에 공을 세운 공신(功臣)으로 주목되기 시작했는데, 대륙 침략에 대한 기운이 점차 높아지면서 시대의 선구자로 현창되었다. 청일전쟁을 계기로 조선 침략의 선구자로 인식되었으며, 태평양 전쟁 때에는 ‘대동아의 건설’에 매진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으로의 영토 확장을 시도한 히데요시의 ‘웅대한 계획’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sup>4)</sup> 이와 같이 메이지 유신을 거쳐 해외 확장에 나선 근대 일본에서 히데요시는 분열되어 있던 일본을 통일하고 해외 확장을 도모한 영웅으로 인식되었다.

한편으로 조선에서 히데요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킨 일본의 영수로 악명 높은 인물인데, 근대 이후에 저술된 기록물 중에서 히데요시가

2) 이하 인용문 중의 괄호 안에서 설명한 말은 인용자가 한 것이다.

3) “嗚呼。使太閤生於女直・靺鞨間，假之以年，則烏知覆朱明之國者，不待覺羅氏哉？蓋其爲人酷肖秦皇・漢武，而雄才大略遠出其右。”(賴山陽, 『日本外史』, 권17 『德川氏前期 豊臣氏』, 下, 장31앞)

4) 다카기 히로시(高木博志), 『근대 일본의 히데요시 영웅 만들기』, 정두희·이경순 엮음,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169~185면 참조.

어떤 인물인지를 자세히 살펴본 사례는 찾기 어렵다. 조선 시대에도 히데요시라는 이름은 잘 알려져 있었으나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지식은 미약했던 것 같다. 신흠(申欽, 1566~1628)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역사적 경위를 정리한 글에서 일본이 침략하기 이전에 히데요시가 쓰시마(對馬島)를 통해 사신을 파견해왔는데, 그 때 조정에서는 히데요시가 어떤 인물인지 아무도 몰랐으며, 히데요시에 대해 확실한 정보가 없었다고 술회하고 있다.<sup>5)</sup>

조선 후기가 되어도 그리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안정복(安鼎福, 1721~1791)도 신흠과 비슷한 지적을 하였다. 그는 지금 중국의 운세가 쇠퇴하고 몽고가 한참 흥성하고 있는데 매년 중국을 왕래하는 우리 사신들이 오랑캐들의 동정을 알지 못해 ‘후일 변란을 제압하는 방법’[日後制變之術]을 전혀 모르는 것은 탄식할 만하다고 하면서 일찍이 선조 때에도 명신들이 조정에 많이 있었는데 유성룡(柳成龍) 같은 사람조차 쓰시마의 영주에 대해 무식했을 뿐 아니라 히데요시가 누구지도 모른 채 변란에 대응하려고 했다고 하여 그 당시 일본에 대한 정보수집에 소홀했던 점을 비판하였다.<sup>6)</sup> 이덕무(李德懋, 1741~1793)도 ‘승리를 거두는 책략’[制勝之策]으로 ‘첩자’[間諜]를 이용하여 적국 장수의 성명, 관직, 용모, 성격 등을 안 뒤에야, 변란을 대응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방법을 몰라 일본과 만주에서 침략을 받아도 상대의 장수가 누구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일찍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적국의 장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을 비판한 다음, 『화환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에 실린 히데요시의 항목을 참조하면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군대 편성 및 전황의 변화 과정을 기록한 바 있다.<sup>7)</sup> 이와 같이 안정복과 이덕무는 예기하지 않은 변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국의 영수의 이름, 내력, 능력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주변국에 대한 정보수집이 소홀하다는 비판의식이 깔려 있었다고 보인다.

이처럼 히데요시가 누구지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지식은 아주 미약했다. 그런데 일본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문인들 및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문인

5) 申欽, 『壬辰倭寇構勢始末志』, 『국역 상촌 신흠 문집』 6, 411~412면.

6) 安鼎福, 『上星湖先生書(己卯)』, 『順菴先生文集』 卷之十, 한국문집총간 229, 552면.

7) 李德懋, 『南北敵將』, 『靑莊館全書』 卷55, 『蟲葉記』, 한국문집총간 258, 504면.

들은 히데요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히데요시가 어떤 인물인지, 일본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고자 하였다. 히데요시 통치하의 일본을 다녀온 문인들은 실제로 히데요시가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인들이 히데요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견문하였고, 에도 시대에 일본을 방문한 사행원들은 일본인들이 옛날의 통치자인 히데요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견문하였다.

에도 시대의 일본인들이 히데요시 내지 임진왜란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검토한 선행연구는 몇 가지 있다.<sup>8)</sup> 그러나 히데요시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인식 및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인식을 통시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다. 히데요시 및 임진왜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조선시대의 자료는 상당히 많다. 본고에서는 히데요시 연구의 첫 단계로서 일본에 갔다온 문인들이 남긴 기록을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히데요시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 사행록을 시대 순으로 검토하면서 히데요시에 대한 인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통시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히데요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의 형성과정 및 히데요시가 창건한 다이부쓰지(大佛寺)로의 방문을 둘러싸여 일어난 논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고를 통해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不共戴天之讎)로 감정적인 증오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히데요시의 모습이 일본 사행을 거듭하면서 점차 밝혀지는 과정, 직접적인 견문을 통해 사행원들이 히데요시라는 인물을 상대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 2. 히데요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형성

사행록에 보이는 히데요시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그런데 사

8) 김시덕, 『그들이 본 임진왜란』, 학고재, 2012; 미야지마 히로시, 『근세일본의 조선인식』, 『동아시아의 지식교류와 역사기억』, 동북아역사재단, 2009; 김광욱, 『임진왜란과 풍신수길』, 『변혁기의 일본과 조선』, 인문사, 2011. 등 참조

행원들은 일본을 다니면서 히데요시에 대한 미담이나 히데요시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본인의 모습을 목도하였다. 그에 따라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로만 알고 있었던 히데요시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생겼다. 여기서는 사행원들이 일본을 다니면서 히데요시에게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에 따라 어떤 인식의 변화가 생겼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도요토미 정권하의 일본에서 포로로 지냈던 강항(姜沆, 1567~1618)이 남긴 『간양록』(看羊錄)에는 히데요시에 관한 기술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강항은 히데요시의 출신지가 오와리의 나카무라이고 생년은 가정(嘉靖) 병신년(1536)이며, 키가 작고 용모가 원숭이와 비슷하고, 오다 노부나가의 총애를 받으면서 권력을 잡게 되었다는 등, 자세하게 그를 소개하였는데,<sup>9)</sup> 그 내용이 종래 조선 문인들이 소개한 것보다 훨씬 정확하다. 조선 시대 히데요시를 소개한 글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오해는 히데요시가 중국 출신이라는 점<sup>10)</sup>과 그가 오다 노부나가를 시해했다는 점이다. 특히 히데요시가 중국 출신이라는 설은 18세기 후반에 기록된 글 중에서도 보이는데, 히데요시에 대한 강항의 글은 그것보다 더욱 정확히 히데요시의 실상을 포착하고 있다.

임진왜란을 겪었던 만큼 강항은 히데요시를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한편으로 히데요시의 미담도 기록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 일화는, 조선 사신이 일본에 왔을 때 히데요시는 문서 작성을 담당하는 승려에게 조선에 보낼 회답 국서에 군사를 일으키는 뜻이 있음을 분명히 적게 하였는데, 승려들이 불의에 침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하자, 히데요시는 그렇게 하면 잠자는 사람의 머리를 베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미리 준비를 하게 한 다음에 승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두 번째 일화는, 일본에 표류하여

9) 姜沆, 『看羊錄』, 『賊中間見錄』, 『해행총재』II, 171면. 『해행총재』에 수록되는 사행록은 모두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나온 『해행총재』를 사용하였다. 이하 본고에서 『해행총재』에 실린 사행록을 인용할 때는 민족문화추진회에 의한 번역을 참조하여 권수와 번역본의 면수를 밝혔으며, 필요에 따라 필자가 번역을 일부 수정하였다.

10) 히데요시가 중국 출신이라는 설은 중국 서적을 통해 널리 퍼졌던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鄭潔西, 『秀吉の中國人説について』(『或問』 14호, 近代東西言語文化接觸研究會, 2008)를 참조.

규슈(九州)에 살던 허의후(許儀後)라는 중국인이 일본의 비밀 사항을 적은 편지를 몰래 명나라에 보내려고 했는데, 이웃에 사는 중국인이 그것을 밀고 하였기 때문에 체포당했다. 신하들이 허의후를 삶아 죽이려고 했는데, 히데요시는 허의후의 행동은 명나라 사람으로서 사리에 맞는 행동이요, 명나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이 아니며 예로부터 제왕은 초야에서 나왔으니 내가 미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명나라에 알려주는 것도 해로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허의후의 행동을 불문에 부치고 허의후를 밀고한 중국인을 심하게 질책하였다.<sup>11)</sup> 이처럼 강항은 전국 시대를 살아온 통치자로서의 히데요시의 모습도 수록하였다. 그런데 히데요시가 허의후를 면죄하였다는 일화는 오류이다. 허의후는 명나라 사람으로 상선에 탔다가 왜구에 잡혀 사쓰마 번(薩摩藩)에 억류되었는데, 의학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시마즈 요시히사(島津義久)에게 인정받아 사쓰마 번의 의관이 되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의 내부사정을 명나라에 밀고하였다가 체포되었다. 분노한 히데요시는 그를 삶아 죽이려고 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543~1616)가 히데요시를 달래어 허의후를 면죄 받게 하였다.<sup>12)</sup> 따라서 이 일화는 히데요시가 아니라 이에야스의 미담이라 할 수 있다. 강항의 저술에는 이러한 오류가 있긴 하지만 히데요시의 긍정적인 측면을 기록에 남겼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1624년에 부사로 일본에 다녀온 강홍중(姜弘重, 1577~1642)은 일본에서 히데요시가 이룩한 공적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오다 노부나가 이전의 일본은 여러 장수들이 제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진압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각 지방의 영주들 각자가 웅거하면서 이웃나라로 진입하여 약탈 행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그 때문에 백 년 전에는 조선의 변경은 평온한 해가 없었는데, 히데요시가 노부나가를 대신하여 일본을 통치했을 때부터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각 지방을 평정하여 나라를 통일하여 엄격히 통치하여 각 지방의 영주들이 마음대로 군사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였다고

11) 姜沆, 『看羊錄』, 『賊中聞見錄』, 『해행총재』II, 173면. 『간양록』에서 허의후는 ‘許宜後’로 표기되어 있는데, ‘許儀後’가 옳다.

12) 허의후에 대해서는 管寧, 『許儀後事迹考略』, 『江西社會科學』, 1992年 第4期, 中國社會科學院, 1992 참조.

하고는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과정을 서술한 다음, “히데요시는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이긴 하지만 또한 공적이 있다 하겠다.”라고 하여, 히데요시가 이룩한 정치적 공적을 평가하였다.<sup>13)</sup>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의 공적이 있겠다는 말인데, 강홍중의 이러한 발언은 히데요시를 ‘우리’의 입장에서만 아니라 ‘그들’ 즉 일본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의 입장에서 보고 있었던 대상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게 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해외 사행의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인식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1748년 종사관으로 일본을 방문한 조명채(曹命采, 1700~1764)는 일본인들이 히데요시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수적(秀賊: 히데요시를 말함)이 성을 고쳐 도요토미라 칭하였는데, 그가 죽은 뒤에도 국인이 오히려 그의 포악함을 두려워하여 도요쿠니 다이묘진(豊國大明神)이라 하며, 모든 문자에도 도요토미씨라 칭한다. 어떤 왜인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말하기를, “도요토미의 임진년 거사는 비록 조선에 원한을 맺기는 하였으나, 또한 막대한 은혜가 있었다. 만약 도요토미가 여러 섬을 통합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이 어떻게 연해(沿海) 왜인들의 침략을 견디어 내겠는가?”라고 하였다고 한다. 대개, 히데요시 이전에는 각 섬의 소소한 왜인이 통일됨이 없이 저대로 체결하여 때 없이 출몰하여 우리나라 연해의 근심거리가 되었는데, 히데요시가 소소한 여러 섬을 통합한 뒤부터 섬 왜인이 모두 열주(列州)에 귀속되고 몰래 침구하는 근심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왜인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괴이할 게 없다.<sup>14)</sup>

13) “是以秀吉之於我國，雖是不共戴天之讎，亦可謂有功者矣。”(姜弘重, 『東槎錄』, 『聞見總錄』, 『해행총재』Ⅲ, 292면.)

14) “秀賊改姓稱豊臣，及其斃也，國人尙懼餘虐，謂之豊國大明神。凡諸文字，亦稱豊臣氏。倭人有言於我人曰：豊臣壬辰之舉，雖構怨朝鮮，亦有莫大之惠。若非豊臣之統合諸島，朝鮮何以堪沿海倭人侵掠之患云。蓋在秀賊之前，則各島小小之倭，無所統一，自相締結，出沒無時，爲我國沿海之患矣。自秀賊之統合小小諸島，島倭皆有列州之歸屬，而竊發之患沈息云。倭人則無怪有是說矣。”(曹命采, 『奉使日本時見聞錄』, 『聞見總錄』, 江戶, 『해행총재』Ⅹ, 254)

‘도요쿠니 다이묘진’이란 히데요시가 죽은 후 부여받은 신호(神號)이다. 1598년 8월18일에 죽은 후, 1599년 4월에 히데요시의 유해는 교토 호코지(方廣寺)의 동쪽에 있는 아미다가미네(阿彌陀ヶ峰)의 묘소(廟所)에 매장되었다. 이 묘소를 도요쿠니 진자(豊國神社)라고 하며, 사람들은 거기서 히데요시에게 도요쿠니 다이묘진이란 신호를 부여하고 신으로 모셨다. 1615년 도요토미씨가 멸망하자 이에야스는 도요쿠니 진자를 폐절하여 히데요시의 신호를 박탈하고 시체를 호코지로 옮겼다. 메이지 유신 직후의 1868년에 사전(社殿)이 다시 세워졌다.<sup>15)</sup> 조명채는 교토를 지나가면서 일본인들이 히데요시를 도요쿠니 다이묘진으로 받들고 있음을 알았던 듯하다. 일본인이 히데요시를 신으로 모시고 있다고 조명채가 기록한 것은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신격화되어 있음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히데요시에 대해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것은 1763년에 일본에 다녀온 계미통신사(癸未通信使)이다. 서기(書記)로 사행에 참여한 성대중(成大中, 1732~1809)은 히데요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본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교토를 지날 때의 일기에서 “높은 다리와 큰 절은 모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은 것으로 다리의 난간에는 구리를 씌워 ‘풍신공(豊臣公)이 만든 것’이라고 새겨 놓은 것이 많았다. ‘풍신’은 히데요시의 성이니, 참으로 일본 땅의 진시황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성대중은 견문록에서도 일본인들이 지금도 히데요시의 공적을 제(齊)나라 항공(恒公)과 진(晉)나라 문공(文公)에 견준다고 하면서 히데요시를 일본의 진시황이라 할 수 있다고 하며, 그 때문에 일본인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공적은 66주를 덮고, 해악은 백만의 생민들에게 두루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7)</sup> 화려하고 웅대한 건물을 지은 히데요시의 공적을

~255면.)

15) 國史大辭典編輯委員會, 『國史大辭典』, 東京: 吉川弘文館, 1989, 제10권, 449~450면의 ‘豊國神社’ 항목 참조.

16) “崇橋巨刹竝秀吉所搆也. 橋欄銅冒刻以豊臣公所造. 豊臣秀吉姓也, 信日域之秦政也.”(成大中, 『榷上記』, 장18앞; 홍학희 옮김, 『일본록-부사산 비파호를 날 듯이 건너』, 소명출판, 2006, 66면) 인용문의 번역은 번역본을 참조하여 필요에 따라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이하 동일하다.

17) “豊臣公功蓋六十六州, 毒遍百萬生靈.”(成大中, 『日本錄』, 장14뒤; 『일본록-부사산 비파호를 날 듯이 건너』, 170면.)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 히데요시가 생민들에게 해악도 끼쳤다고 보고 있는 일본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성대중도 조명채와 마찬가지로 교토를 지나가면서 히데요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본인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교토는 일찍이 히데요시가 근거지로 삼은 도시이다. 정권을 장악한 히데요시는 이른바 교토개조(京都改造)를 실행하였다. 건물·주택의 건설, 대규모의 구획 정리, 시가지의 개정 등 대대적인 공사를 시행하면서 철저히 교토를 개조하였다.<sup>18)</sup> 이 때문에 그 당시 교토에는 히데요시가 건설한 건물이나 다리가 많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행원들은 히데요시가 개조한 교토를 다니면서 일찍이 강대한 권력을 장악한 히데요시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성대중과 더불어 제술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남옥(南玉, 1722~1770)은 사행록의 견문록에 히데요시의 항목을 만들어 자세히 그의 생애를 저술하고 있다. 남옥은 일본을 통일한 히데요시의 정치를 “진시황이 병합하고 항우(項羽)가 다스린 자취가 있었다.”라고 높이 평가하였고, 히데요시는 조선에서 만세(萬世)의 원수이긴 하지만 조선과 중국을 어지럽힌 왜구가 사라진 것은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19)</sup> 이와 같이 남옥은 히데요시의 정치를 진시황과 항우에 비유하면서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그들이 직접 일본에 가서 견문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 점에서 히데요시를 칭송하는 일본인의 모습은 사행원들에게 히데요시를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 3. 히데요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형성

앞에서 히데요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사행록을 통해

18) 교토개조에 대해서는 杉森哲也, 『近世京都の都市と社會』,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8, 19~50면 참조.

19) “有秦政併吞, 項羽宰割之跡.”(南玉, 『日觀記』, 권10 『總記』, 장8앞; 김보경 옮김, 『일관기-북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 2006, 557면.) 인용문의 번역은 번역본을 참조하여 필요에 따라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이하 동일하다.

보이는 히데요시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과 달리 에도 시대의 일본인들도 히데요시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사행록을 보면 히데요시를 미워하는 일본인의 모습이 도처에서 묘사되어 있는데, 히데요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일본인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낳았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590년에 일본을 다녀온 황윤길(黃允吉, 1536~?), 김성일(金誠一, 1538~1591) 등은 직접 히데요시와 대면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희귀한 경험을 했는데, 김성일의 『해사록』(海槎錄)에는 히데요시와 만났을 때의 상황을 기록한 대목은 안 보인다. 그런데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일본에서 돌아온 황윤길을 비롯한 사행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다이라 히데요시(平秀吉)는 용모가 작고 못생겼으며 낮빛이 검어 남다른 위의(威儀)는 없었으나, 다만 눈빛이 반짝반짝하여 사람을 쏘아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라고 하여 히데요시의 인상을 기록하고 있다. 또 히데요시의 행동거지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이고 매우 거만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 마치 옆에 사람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라고 하여 히데요시의 태도가 매우 거만스럽다고 하였다.<sup>20)</sup> 이로 보아 사행원들의 눈에 비친 히데요시의 모습은 첫인상부터 나빴던 것 같다.

한편 1596년 명나라의 사신을 따라 일본을 방문한 황진(黃愼, 1560~1617)은, 코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1558~1600)의 신하인 요시라(要時羅)와 나눈 대화를 기록해 놓았다. 요시라는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상당히 횡포한 정치를 시행하고 있어 일본인들도 히데요시를 미워하고 있다는 점, 히데요시 자신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 생명의 위협이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으며 신하들에게 억지로 무거운 부역을 부과함으로써 위기를 피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도요토미 정권이 조만간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하였다.<sup>21)</sup>

20) “秀吉容貌矮陋，面色黧黑，無異表，但微覺日光閃閃射人云(…)皆肆意自得，傍若無人。”(柳成龍, 『懲愆錄』, 장4뒤) 인용문의 번역은 이재호 옮김, 『국역 정본 징비록』(역사의아침, 2007), 29~30면을 참조하여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21) 黃愼, 『日本往還日記』, 10월10일條, 『해행총제』VII, 162면.

강향이 일본에서 히데요시에 대해 견문한 내용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는 히데요시의 통치가 시작되자 세금의 징수가 엄격해지고 흉년에도 정해진 대로 세금을 받았으며, 그 결과 장수들은 히데요시와 견줄 만한 부요함을 즐기는 데에 비해 농민들은 가난하여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히데요시의 압정에 지친 농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또 지금 일본에서 권력을 잡은 장수들은 모두 원래 어리석고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히데요시에게 의탁함으로써 부귀를 얻었다고 하여, “일본의 역사에서 지금만큼 전도(顛倒)가 심했을 때는 없다.”라는 일본 승려의 말을 소개하고 있다.<sup>22)</sup>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에서 유포된 히데요시 이미지와 달리 그 당시의 일본인들은 히데요시의 가혹한 정치에 대해 원한을 지니고 있었다. 도요토미 정권하의 일본을 목도한 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히데요시의 가혹한 정치와 대륙 침략에 불만을 가진 일본인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은 에도시대 일본인에게도 해당한다. 1711년 부사로 일본을 방문한 임수간(任守幹, 1665~1721)은 일본에서 몰래 역사서를 구입했다. 임수간은 그 책을 통해 일본 흥망의 흔적을 알 수 있었다고 하면서 수백 년 전의 일본은 국내가 분열되어 서로 전쟁을 했고 조선이나 중국의 절강성(浙江省)은 그들의 약탈행위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하였다. 이어서 임수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급기야 히데요시가 뜻을 이룩하면서 온 국력을 기울여 침입하니, 우리나라는 물론 큰 피해를 입었으나 그 나라도 텅 비어 가까스로 지탱하고 있을 정도였다. 히데요시가 이미 죽자, 왜인들도 그것을 지극한 훈계로 삼아 그 뿌리박힌 독한 풍속을 차차 변화시켜 지금은 히데요시를 풍적(豊賊)이라 매도한다.<sup>23)</sup>

강홍중이 일본의 입장에 서서 히데요시를 봄으로써 히데요시의 긍정적인

22) “自有日本以來，未有如此時之顛倒者也。”(姜沆, 『看羊錄』, 『倭國八道六十六州圖』, 『해행총재』II, 121면.)

23) “及秀吉之得志也，傾國入寇，東土雖甚創殘，其國亦虛耗僅存。秀吉既亡，倭人以爲至戒，其根毒之俗稍變，至今罵秀吉爲豊賊。”(任守幹, 『東槎日記』, 『海外記聞』, 『해행총재』IX, 285면.)

측면을 발견하였던 반면, 임수간은 일본의 입장에서 쓴 역사책을 통해 일본인 또한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때문에 고통을 맛보아 히데요시를 ‘풍적’이라 부르며 증오하고 있는 모습을 목도한 것이다. 18세기에 들어서도 히데요시의 압정과 전쟁 때문에 겪은 뼈아픈 기억은 그 당시 일본인들의 기억에 여전히 남아 있던 것이며, 임수간은 그러한 일본인의 모습을 잘 관찰하고 있었다.

1719년 제술관(製述官)으로 일본에 다녀온 신유한(申維翰, 1681~1752)도 히데요시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그런데 히데요시에 대한 그의 지식은 강항과 비교하면 오류가 적지 않다. 그는 세속에 전하는 이야기로 히데요시가 중국 사람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 또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를 살해했다고도 기록하고 있다.<sup>24)</sup> 신유한의 『해유록』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히데요시에 대해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와 나눈 대화이다. 신유한은 먼저 호슈에게 히데요시는 일본의 옛날 군주인데, 호슈 또한 히데요시의 이름을 휘하고 그의 악행을 숨기는 의지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호슈는 히데요시는 ‘시휼’(豺虺)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액운’(厄運)에 응하여 태어난 사람으로 일족과 종족을 모두 죽여 버리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하면서 그의 참혹한 성품으로 인해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많은 재앙을 입었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호슈는 자신의 아메노모리 일가도 일찍이 히데요시에게 멸족당할 뻔했는데, 한두 사람의 자손이 살아남아 다행히 멸족을 면하였으며,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애타고 아픈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신유한이 그러면 히데요시에게 어떤 공덕이 있냐고 묻자, 호슈는 하나도 공덕이 없다고 하면서 다만 일찍이 일본에서는 각 지역마다 나라를 세워 서로 싸우고 섬에 사는 일본인들이 중국을 침범하고 어지럽게 하였는데, 히데요시가 전쟁을 통해 무력으로 평정하였으므로, 굳이 그의 공덕을 말한다고 하면 그 점이 있을 뿐이라고 답하였다.<sup>25)</sup> 신유한은 호슈와의 대화를 통해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였다. 첫째는 호슈 또한 일족이 히데요시의 악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히데요시를 혐오하고

24) 『海遊錄』 卷中, 9월27일 條, 『해행총재』 I, 525면.

25) 申維翰, 『海遊錄』 卷下, 『附見聞雜錄』, 『해행총재』 II, 99~100면.

있다는 점, 둘째로 히데요시의 공덕을 굳이 지적하자면 분열되어 어지러웠던 일본을 무력으로 평정하였다는 점이다. 신유한 앞에서 히데요시에 대한 원한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아메노모리 호슈의 태도는 결코 조선에서 온 신유한을 의식해서 취한 거짓된 태도가 아닌 것 같다. 호슈 또한 다른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히데요시를 미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유한이 남긴 이 기록을 통해서도 그 당시 일본인에게 히데요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포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48년에 일본을 다녀온 조명채도 히데요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일본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일본이 부유하고 안일하고 백성들이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히데요시의 거병을 지금도 원수처럼 이야기한다고 하여 일본인 스스로가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sup>26)</sup> 조명채와 더불어 군관으로 사행에 참여한 홍경해(洪景海, 1725~1759)는 예쓰 슈(越緝)라는 일본 문인과 히데요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 바 있다.

홍경해: 일본에서는 히데요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쓰 슈: 서해(西海)의 어부의 자식입니다.

홍경해: 그가 시행한 일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쓰 슈: 진시황과 같습니다.

홍경해: 일본 문자에서 ‘수길공’이라 칭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예쓰 슈: 그의 작위는 서경(西京: 천황을 말함)에서 하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의 작위를 존경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홍경해: 그 적(賊)은 우리나라 백세(百世)의 원수입니다. 원씨(源氏: 도쿠가와와 이에야스를 말함)는 그 적을 멸망한 다음, 우리나라의 왕릉을 파헤친 사람을 처형하였고, 또 그 때 전쟁에 나선 장수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끝내 그와 화의를 맺었으니, 화목한 기운이 양국 사이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적(秀賊: 히데오

26) 曹命采, 『奉使日本時見聞錄』, 『聞見總錄』, 江戸, 『해행총재』 X, 254~255면.

시를 말함)이 근거지로 삼은 곳을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머리털이  
 곤두서고 마음이 오싹합니다. 혹시 그들이 후손이 있습니까?

에쓰 슈: 원씨의 세상에서 어찌 수적의 자손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일삼아  
 무력을 남용하여 죄없는 이를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하늘의 도가  
 매우 밝아서 지금 후손은 없습니다.<sup>27)</sup>

홍경해는 일본에서 히데요시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에쓰 슈라는 일본 문인이 히데요시에 대해  
 매우 냉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길공’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보면 일본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홍경해의 질문에 에  
 쓰 슈는 작위를 존경하지 히데요시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하였  
 는데, 이 대답은 히데요시가 일본 지식인에게 얼마나 멸시되고 있는지를 은  
 근히 말해준다. 이 외에도 1763년 정사(正使)로 일본을 방문한 조엄(趙巖,  
 1719~1777) 또한 히데요시가 매우 흉포하게 전쟁을 일삼았기 때문에 조선  
 인뿐 아니라 일본 백성들도 히데요시의 가혹한 정치에 대해 원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야스가 나타나자 히데요시와 서로 경계하는 관  
 계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조엄은 히데요시가 죽은 이후에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아 히데요리를 죽여 도요토미 일가를 배제한 과정을 기술하고 있  
 다.<sup>28)</sup>

이상과 같이 임진왜란부터 계미통신사까지의 히데요시 인식을 살펴보았  
 는데, 사행원들은 일본을 다니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히데요시를 미워하고  
 있음을 목도하였다. 이러한 견문을 통한 지식은 조선 국내의 지식인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일본론』(日本論)이라는 글  
 에서 일본의 제침략의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 첫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7) “余問曰：日本以秀吉爲何如？答曰：西海漁人之子也。余曰：其行事何如？答曰：如秦始皇。問曰：日本文字稱以秀吉公何也？答曰：其爵則西京所賜，故人敬其爵，不敬其人。余曰：此賊我國百世之讎也。源氏盡滅此賊之後，斬犯陵之賊，且戮其時出戰將士，故我國果與之通和好，和氣滿於兩國。而若過秀賊其時盤居之處，則不覺髮豎心寒，其人或有遺孽耶？答曰：源氏之世，豈有秀賊之子孫，窮兵黜武多殺無罪之故，天道昭明，今無其餘孽耳。”(洪景海, 『隨使日錄』卷中, 장55뒤~56앞)

28) 趙巖 『海槎日記』甲申年 2월 27일 條, 『해행총재』VII, 213면.

다이라 히데요시(平秀吉)가 백만 대군을 동원하고 십주(十州)의 재력을 다 기울여 두 번이나 큰 전쟁을 일으켰으나 화살 한 개도 돌아가지 못했던 데다 나라도 따라서 멸망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를 원망하고 있으니, 그들이 다시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일본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첫째 이유이다.<sup>29)</sup>

일본인들이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을 잘못된 전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조선 국내에도 전파되어 있었던 것 같다. 정약용의 주장은, 일본 사행을 통해 다년간에 걸쳐 축적된 히데요시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히데요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일본인에 대한 지식의 축적은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일본론에 집약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 다이부쓰지(大佛寺)에 대한 지식의 축적

이 절에서는 다이부쓰지에 대한 지식의 축적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이부쓰지는 일본 교토에 있는 호코지를 가리키며, 히데요시가 대불을 건설하기 위해서 세웠다. 1586년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1595년에 대불이 완성되었다가 1596년에 지진으로 인해 무너졌다. 1598년 히데요시가 죽은 이후에는 그의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豊臣秀頼, 1593~1615)의 지휘 아래 재건이 시작되었다. 1609년 완성을 앞두고 화재로 다시 무너졌다가 또 다시 재건이 시작되어 1612년에 대불이 완성되고 1614년에 대불전(大佛殿)이 완성되었다. 그런데 다이부쓰지의 범종(梵鐘)에 ‘국가안강’(國家安康) ‘군신풍락’(君臣豊樂)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이에야스가 문제시하였다. ‘국가안강’이라는 글자가 ‘이에야스’(家康)의 이름을 잘라 ‘군신풍락’이라는 글자가 도요토미(豊臣)를 군자로 즐긴다는 뜻으로 간주된 것이다. 이 사건

29) “平秀吉動百萬之衆，竭十州之力，再舉大事，一鏃不還，國隨以亡。百姓至今怨之，其不宜踰審矣。此日本之無可憂一也。”(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一集 詩文集 제12권 『日本論二』)

을 ‘호코지 증명사건’(方廣寺鐘銘事件)이라고 하는데, 도요토미씨를 물리치고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이에야스는 이 사건을 핑계로 삼아 히데요리가 있던 오사카 성(大坂城)을 공격하여 도요토미씨를 멸망시켰다.<sup>30)</sup>

이 다이부쓰지를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이 1636년에 일본에 다녀온 김세렴(金世濂, 1593~1646)이다. 그는 사행록에 그 당시 히데요리가 아버지 히데요시의 재산을 물려받아 막대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히데요리의 모반을 경계한 이에야스가 히데요리의 재물을 없애기 위해서 다이부쓰지(大佛寺)를 중건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sup>31)</sup> 이에야스가 히데요리가 소유한 막대한 재산을 일부러 소진시키기 위해서 다이부쓰지 중건을 명령하였다는 김세렴의 기록은 실제와 부합하는 역사적 사실인데,<sup>32)</sup> 다이부쓰지는 조선 통신사와 인연이 깊은 사찰이다. 조선 사절이 일본에 오면 이 사찰에서 휴식을 취하고 간단히 간식을 먹는 것이 관례였다. 1624년의 사행원 강홍중은 다이부쓰지에 안치된 큰 대불을 보면서 “그 제도의 장려(壯麗)함이 천하에 둘도 없는 거찰(巨刹)이었다.”<sup>33)</sup>라고 기록하였던바, 사찰의 장려함에 크게 놀랐던 것 같다. 임진왜란 때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의 전공(戰功)을 증명하는 증거물로 조선인의 귀와 코를 잘라 일본으로 가져오게 하였는데, 다이부쓰지 바로 앞에는 조선에서 가져온 귀와 코를 모아 세운 미미즈카(耳塚: 하나즈카鼻塚라고도 함)가 있다.

이와 같이 다이부쓰지는 여러 가지 조선과 나쁜 인연이 있는 사찰인데 1719년 사행 때 다이부쓰지의 방문을 둘러싸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서 다이부쓰지에 대한 사행원들의 지식은 갈수록 확대되었다. 그 분쟁은 히데요시가 창건한 다이부쓰지에서 연회를 열자는 일본 측의 제안을 조선 사신들이 거부하면서 일어났다. 1719년 사행에 참여한 신유환은 다이부쓰지 방문을 둘러싸여 일어난 분쟁을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1719년 11월 1일 교토를 방문하였을 때 쓰시마 영주가 다이부쓰지

30) 笠谷和比古, 『關ヶ原と大坂の陣』(戰爭の日本史 17), 東京: 吉川弘文館 2007, 204~213면 참조.

31) 金世濂, 『海槎錄』, 『見聞雜錄』, 『해행총재』IV, 158면.

32) 藤野保, 『徳川政權論』, 東京: 吉川弘文館 1991, 62~66면 참조.

33) “制作之壯麗, 天下無雙巨刹也.”(姜弘重, 『東槎錄』, 乙丑1월17일 條, 『해행총재』III, 253면.)

에서 연회를 열자고 하였다. 이에 대해 사행원들은 다이부쓰지가 히데요시의 원당(願堂)임을 조선에서 들었다고 하며, 백년의 원수로 하늘을 같이 할 수 없는 히데요시의 절에서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는가 하면서 연회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아메노모리 호슈를 비롯해 통신사를 수행하던 모든 일본 관리들은 다이부쓰지가 히데요시의 원당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사행원들이 일본 측의 주장을 물리치자 일본 측은 거듭 연회에 참여하기를 요구하며, 다이부쓰지 문 밖에서 장막을 치고 연회를 하자는 타협안도 제시하였으나, 조선 측은 이 제안도 물리쳤다. 일본 측이 통역을 통해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구하자 조선 측은 “내가 결코 그 절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것은 의리상 원수를 잊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거절의 뜻을 단호하게 고수하였다. 몇 번이고 말이 오고갔으나 결국 결론은 나지 않았다.<sup>34)</sup> 그 다음날인 11월 2일 쓰시마의 수행원들은 교토쇼시다이(京都所司代)로부터 그가 집에 간직하고 있던 『일본연대기』(日本年代記)라는 ‘비사’(秘史)를 빌려 가져왔다. 쓰시마 측은 이 『일본연대기』라는 책이 일본 국내에 비장되어 있는 책인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이부쓰지가 창건된 것은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 1604~1651)가 장군이 된 해(1624년)이며, 도쿠가와씨와 도요토미씨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신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원씨의 시대에 히데요시의 자손이 섬멸을 당하여 남은 종자가 없는데 어찌 절을 건축하고서 히데요시를 숭봉하였을 리가 있겠습니까. 보여드린 이 책만으로도 원당이란 말이 근거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사행원들이 이 역사책을 통해 다이부쓰지가 이에미쓰가 장군에 즉위하였을 때 창건되었음을 확인하자, 쓰시마 영주는 이제 믿을 만한 역사책을 보고 조선에서 전해들은 말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을 터이므로 부디 다이부쓰지를 방문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사행원들은 역사책을 통해 다이부쓰지가 도쿠가와 씨를 위해 세워졌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연회에 참여하기를 승인하였다.<sup>35)</sup> 그런데 다음날

34) “吾所以決不入寺門者，義不忘讎也。”(申維翰, 『海遊錄』 卷中, 11월1일 條, 『해행총재』 I, 550~552면.)

35) “源氏之世，秀吉之子孫，無遺類，豈有築寺而崇奉之理？是書之出，足以破願堂之訛也。”(申維翰, 『海遊錄』 卷中, 11월2일 條, 『해행총재』 I, 552~554면.)

출발을 앞두고 종사관 이명언(李明彦)이 병을 핑계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쓰시마 영주가 거듭 참여하기를 요청하였으나 단호하게 물리쳤다. 이에 대해 아메노모리 호슈는 화를 풀 데가 없어 역관들에게 고함치고 “조선말과 일본말을 섞어 가며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고슴도치처럼 뿔이 나서 어금니를 드러내”면서 분노하였다. 신유한이 그에게 글을 읽은 사람이 왜 이러냐고 묻자 호슈는 일본의 국사(國史)를 가져와 다이부쓰지가 도쿠가와와의 사찰임을 증명하여 일본 측으로서는 최선을 다하였는데, 그럼에도 국사를 믿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들을 낮추어 보는 것이라 답하였다. 신유한이 그를 달래자 호슈는 사과하고 갔다.<sup>36)</sup>

이상이 1719년 사행 때 일어난 다이부쓰지를 둘러싼 사건의 전말이다. 이 사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지식의 확대가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 이전에는 사행원들은 아무 생각없이 일본 측이 안내하는 대로 다이부쓰지를 방문하고 그 장려함에 놀라워했는데, 다이부쓰지가 히데요시를 위해 세워졌음을 알자 그곳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지식이 행동을 규정하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사행원들의 정확한 지식에 입각한 단호한 행동은 일본 측의 거짓말로 인해 무산되었다. 다이부쓰지가 이에미츠의 시대에 도쿠가와씨를 위해 세워졌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들이 제시한 『일본연대기』라는 ‘비사’가 쓰시마의 위작인지 교토쇼시다이가 정말로 소지하고 있던 책인지 알 수 없는데,<sup>37)</sup> 막부의 지시대로 다이부쓰지로 꼭 안내해야 하는 쓰시마로서는 마지막으로 꺼낸 궁여지책으로 궁지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아메노모리 호슈가 보인 태도에 대해서는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호슈는 다이부쓰지에서의 연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명언에게 분노하였는데, 실은 그 또한 다이부쓰지가 히데요시를 위한 사찰임을 알고 있었다.<sup>38)</sup> 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 역사책을 꺼내 사행

36) “雜用鮮語倭語，吼如獅奮如蝟，張牙裂眦。”(申維翰, 『海遊錄』 卷中, 11월3일 條, 『해행총재』 I, 554~556면.)

37) 山本博文 『對馬藩江戸家老』, 東京: 講談社學術文庫, 2002, 214면 참조. 이 책 209~216면에도 다이부쓰지 사건이 언급되어 있다.

38) 鄭英實, 『18世紀初頭の朝鮮通信使と日本の知識人』, 荒武賢一朗, 池田智恵 編, 『文化交

원들을 다이부쓰지로 안내했고 심지어 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거절한 이명언에게는 몹시 분노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약 2개월 후인 12월 28일 호슈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행원들에게 이별 인사를 하였다. 신유한은 그러한 호슈의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는 문장을 한다고 핑계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창과 칼을 품고 있다.”라고 하여, 만약 호슈가 높은 자리에 올라 나라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이웃 나라와 말썽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면서 호슈가 우는 것은 작은 섬에서 일개의 말단관리로 일생을 마쳐야 하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sup>39)</sup> 신유한이 호슈를 이와 같이 보는 데에는 다이부쓰지 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1719년의 사행을 계기로 다이부쓰지는 사행원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찰이 되었는데, 1748년 종사관으로 일본을 다녀온 조명채는 1719년에 일어난 다이부쓰지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다이부쓰지에 미미즈카가 있으며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했을 때 귀와 코를 베어 거기에 묻고 ‘원당불사’(願堂佛寺)를 지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1719년 사행 때 이 사찰에서 연회를 하자는 일본 측의 제안을 거부하였는데 ‘비사’를 보고나서 비로소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삼재도』(三才圖), 즉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의 조선침략을 기술한 부분에 “미미즈카가 원당 다이부쓰지에 있다.”라는 기록이 있음을 밝히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분통이 터지게 한다.”라고 하였다. 또 “기해년 사행 때 호행왜(護行倭)가 위사(僞史)를 만들어낸 것은 아주 교묘하고 간악하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그 때 이후 도쿠가와 장군이 그 사건을 계기로 다이부쓰지에서 연회를 베풀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sup>40)</sup> 『화한삼재도회』 13권에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을 기록

渉における劃期と創造』, 大阪: 關西大學文化交渉學教育研究據點 次世代國際學術フォーラムシリーズ, 第3輯 2011, 87면 참조. 이 논문에서는 신유한과 더불어 사행에 참여한 홍치중(洪致中)과 정후교(鄭后僑)의 사행록에 저술된 다이부쓰지에 대한 기록도 언급되어 있다.

39) “外托文辭, 內蓄戈劍”(申維翰, 『海遊錄』 下卷, 12월 28일 條, 『해행총재』II, 19면.)

40) “此處大佛寺有朝鮮人耳塚(…)而仍作願堂佛寺。(…)耳塚在於願堂大佛寺云, 見此令人膽裂。己亥護行倭之造出僞史者, 萬萬巧惡。”(曹命采, 『奉使日本時見聞錄』, 『聞見總錄』 倭京, 『해행총재』X, 249면.)

한 대목은 있지만 조명체가 인용한 구절은 안 보인다. 그런데 72권에 「다이부쓰덴 호코지」(大佛殿方廣寺) 및 「미미즈카」라는 제목이 보인다. 「다이부쓰덴 호코지」에는 “텐쇼오 14년 도요토미 다이코가 건립하였다.”라는 대목이 보이고 「미미즈카」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공(公)이 조선정벌 때 얻은 귀와 코를 여기에 묻었다.”라는 대목이 보인다.<sup>41)</sup>

일본에 다녀온 사행원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히데요시를 연구한 사람은 1763년에 일본을 다녀온 원중거(元重擧, 1719~1790)이다. 그는 『화국지』에 수록된 「수적분말」(秀賊本末)에서 히데요시에 관해 자세히 기록하였다. 히데요시의 내력, 노부나가의 충애를 받고 출세한 과정, 용맹한 장수들을 자신의 부하로 끌어들여 일본을 통일한 과정,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부터 죽음까지의 과정 등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 기록 중에서 주목을 요한 대목은 다이부쓰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는 히데요시가 오사카에서 죽자 다이부쓰지에 매장되었음을 밝힌 다음, 다이부쓰지가 히데요시가 세운 절이며 그의 아들인 히데요리가 더 크게 확대하고 큰 불상을 만들었으며, 그 절 옆에 조선에서 가져온 귀와 코를 모아 세운 미미즈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sup>42)</sup> 이와 같이 원중거는 다이부쓰지가 어떤 곳인지를 냉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또 그는 다이부쓰지가 세워진 배경으로 일본 특유의 귀신 숭배를 지적하고 있다.

다이부쓰지를 지은 것은 더욱 극히 흉악하고도 참혹한 해독이다. 대개 단지 나라 가운데 과시하여 자랑하고자 함만이 아니요, 그 나라는 귀신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것으로써 원기(冤氣)를 눌러 이기려 하였다. 그 후에 우리 사신이 저 나라에 들어갔을 때 미미즈카의 옆에서 잔치를 열고 음악을 베푸는 이유는, 또한 물리치는 법을 남몰래 쓰기 위한 것이다.<sup>43)</sup>

41) “天正十四年，豊臣太閤建立” “豊臣秀吉公朝鮮征伐所獲耳鼻埋於此。”(寺島良安, 『倭漢三才圖會』, 卷七十二之末, 제8권 237~239면.) 『倭漢三才圖會』의 원문은 한국학자자료원에서 간행된 책을 사용하였다.

42) 元重擧, 『和國志』권1(아세아문화사 영인본), 『秀賊本末』, 108~109면; 박재금 옮김, 『화국지-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소명출판, 2006), 109면. 인용문의 번역은 번역본을 참조하여 필요에 따라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이하 동일하다.

43) “大佛寺之作尤極兇慘毒。蓋非獨誇矜國中，其國尙畏鬼神，欲以此壓勝冤氣也。其後我

“다이부쓰지를 지은 것은 극히 흉악하고도 참혹한 해독이다.”라는 원증거의 말은 다이부쓰지 창건의 경위 및 신도를 믿는 일본의 풍속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피력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일본인이 신도를 믿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일본인이 부처를 받드는 것도 실은 신도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었다.<sup>44)</sup> 그는 다이부쓰지를 지은 것도 신도에 바탕을 둔 일본인의 귀신 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다이부쓰지가 히데요시의 원기를 이기기 위해서 창건되었다고 보았다. 미미즈카에서 사신들과 연회를 여는 것도 ‘물리치는 법’(禳法), 즉 신도에서 나온 정화(淨化)의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히데요시가 죽은 후 도요쿠니 진자를 세워 매장했는데, 그 때 시행된 매장 의식은 요시다 신도(吉田神道)의 방식에 따라 행해졌다.<sup>45)</sup> 요시다 신도는 그 당시 일본에서 주류를 이룬 신도 일파이다. 이로 보아 원증거의 관찰은 핵심을 꿰뚫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원증거는 1719년의 사신들이 다이부쓰지의 연회를 사양한 경위에 언급하면서 그 때 연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종사관 이명언이 “다이부쓰지 연향이 애초에 중요하지도 않고, 반드시 그대로 할 필요도 없는데 믿고 가는 것은 의심스럽다. 또한 왜인이 교묘하게 속인 것이니, 이 책이 하룻밤 사이에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나는 연회에 갈 수 없다.”라고 하였다 고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제8대 막부 장군인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 1684~1751)가 “이 일은 본래 거짓으로 속인 것이며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다이부쓰지의 연회를 폐지하였으며, 그 이후 통신사행 때는 후시미성(伏見城)을 경유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다.<sup>46)</sup>

원증거는 그 때까지 쌓여있던 다이부쓰지에 대한 지식을 집대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다이부쓰지가 창건된 과정, 다이부쓰지 창건의 종교적 배경, 1719년 사행 때 일어난 다이부쓰지에서의 연회를 둘러싼 분쟁과 그 후

使入彼時，設宴張樂于耳塚之傍者，亦所以暗用禳法也。”(元重學，『和國志』권1，『秀賊本末』，113면；『화국지-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112~113면.)

44) 『和國志』권1 『倭皇本末』 참조.

45) 三鬼清一郎，『織豊期の國家と秩序』東京：青史出版，2012，283~299면 참조.

46) “大佛寺宴享初無所重，不必置之，疑信而往赴，且倭人巧詐，安知此刊冊一夜間僞作者耶？吾不可赴宴（…）此事本欺詐不誠。”(元重學，『和國志』권1，『秀賊本末』，113~114면；『화국지-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113면.)

에 도쿠가와 막부가 시행한 대응책 등 다이부쓰지에 대한 모든 지식을 『화국지』에 기록하고 있다.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에서 도요쿠니 진자가 다시 창건되어 일본의 대륙침략이 진행됨에 따라 히데요시가 ‘대동아 건설’의 선구자로 현창되었던 것을 감안할 때, 다이부쓰지 건립을 “극히 흉악하고도 참혹한 해독”이라고 갈파한 원증거의 해안은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원증거의 관찰도 다이부쓰지와 히데요시, 그리고 일본의 신도 숭배에 대한 냉정하고 정확한 지식이 가능케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이부쓰지를 둘러싸여 치열한 논쟁을 벌인 사행원들의 경험은 마지막으로 다이부쓰지라는 곳을 투철하게 관찰한 원증거의 냉정한 지성으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사행원들이 직접 일본을 견문하면서 히데요시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히데요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본인이 있다는 사실이다. 각 지방의 영주들이 서로 각축하고 분열된 상태에 있던 일본을 통일하고 엄격하게 통치하였다는 점에서 히데요시의 공적을 칭송하는 일본인들이 있음을 사행원들은 기록하고 있다. 둘째는 히데요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일본인이 있다는 사실이다. 히데요시의 가혹한 정치를 혐오하고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으로 인해 일본인 모두가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로 히데요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일본인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셋째로 히데요시에 의해 세워진 다이부쓰지에 대한 지식이다. 당초 아무것도 모르는 사행원들은 일본에 갈 때마다 쓰시마의 안내에 따라 다이부쓰지를 방문하였는데, 1719년 사행 때 이 사찰을 발단으로 분쟁이 일어나자 이후 다이부쓰지 방문이 폐지되었다. 1763년 원증거는 다이부쓰지는 확실히 히데요시의 원당이라는 점, 1719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 측이 제시한 『일본연대기』의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점, 다이부쓰지 창건의 배경에는 신도에 입각한 귀신 숭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로 보면 일본에 다녀온 사행원들은 히데요시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식을 쌓았음을 알 수 있다.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로 감정적인 복수의 대상으로만 기억되어 있었던 히데요시의 실상이 일본 사행을 거듭하면서 점차 밝혀져 갔다. ‘원수’ 히데요시는 의외로 분열된 일본을 통일하고 장대한 성곽과 교량을 세워 진시황의 정치를 실행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 참혹한 정치를 행하던 히데요시를 미워하고 히데요시가 실행한 조선 침략이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인식하는 일본인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거짓 역사서를 보이면서 다이부쓰지를 방문시킨 교활한 일본인이 있는가하면 다이부쓰지 방문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자 다이부쓰지의 연회를 폐지하는 배려를 보인 도쿠가와 요시무네 같은 장군도 있었다. 1719년 사행을 계기로 다이부쓰지가 주목되면서 사행원들은 다이부쓰지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였다. 원증거는 히데요시뿐만 아니라 일본의 종교적 관습과 연결하면서 다이부쓰지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행원들은 일본에서 건문한 것을 통해 히데요시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식을 축적하였다. 그리고 그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예리하게 관찰하였다. 다만 이러한 사행원들의 경험이 조선 국내에서 일부의 지식인에게만 공유되어 있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룬 자료는 일부에 불과하며 그 외에도 사행록에는 히데요시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가 적지 않다. 그 중 임진왜란에 대한 기사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국역 『海行摠載』, 민족문화추진회, 1982.
- 姜沆, 『看羊錄』, 海行摠載所收
- 姜弘重, 『東槎錄』, 海行摠載所收
- 金世濂, 『海槎錄』, 海行摠載所收
- 南玉, 『日觀記』,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南玉, 김보경 옮김, 『일관기-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 2006.
- 成大中, 『槎上記』, 辛基秀, 仲尾宏 『大系朝鮮通信使』 제7권, 明石書店, 1997.
- 成大中, 『日本錄』, 辛基秀, 仲尾宏 『大系朝鮮通信使』 제7권, 明石書店, 1997.
- 成大中, 홍학희 옮김, 『일본록-부사산 비파호를 날 듯이 건너』, 소명출판, 2006.
- 申維翰, 『海遊錄』, 海行摠載所收
- 신흠, 『상촌 신흠 문집』, 민족문화추진회, 2008.
- 安鼎福, 『順菴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229.
- 柳成龍, 『西厓文集』,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58.
- 柳成龍, 이재호 옮김, 『국역정본 정비록』, 역사의 아침, 2007.
- 元重舉, 『和國志』, 栖碧外史海外蒐佚本 30, 아세아문화사, 1990.
- 元重舉, 박재금 옮김, 『화국지-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 소명출판, 2006.
- 李德懋, 『靑莊館全書』, 한국문집총간 258.
- 李景稷, 『扶桑錄』, 海行摠載所收
- 任守幹, 『東槎日記』, 海行摠載所收
- 丁若鏞,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
- 曹命采, 『奉使日本時見聞錄』, 海行摠載所收
- 趙暉, 『海槎日記』, 海行摠載所收
- 鄭后僑, 『東槎錄』, 京都大學圖書館 소장.
- 洪景海, 『隨使日錄』 규장각 소장본.
- 黃愼, 『日本往還日記』, 海行摠載所收
- 賴襄 著, 保岡元吉 校, 『日本外史』,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878.
- 寺島良安, 『倭漢三才圖會』, 韓國學資料院, 2011.

## 2. 단행본

김광옥, 『변혁기의 일본과 조선』, 인문사, 2011.

김시덕, 『그들이 본 임진왜란』, 학교재, 2012.

國史大辭典編輯委員會, 『國史大辭典』, 東京: 吉川弘文館, 1989.

藤野保, 『徳川政權論』, 東京: 吉川弘文館, 1991.

藤木久志, 『豊臣平和令と戦國社會』,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5.

笠谷和比古, 『關ヶ原と大坂の陣』(戦争の日本史 17), 東京: 吉川弘文館, 2007.

山本博文 『對馬藩江戸家老』, 東京: 講談社學術文庫, 2002.

三鬼清一郎, 『織豊期の國家と秩序』, 東京: 青史出版, 2012.

杉森哲也, 『近世京都の都市と社會』,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8.

## 3. 논문

다카기 히로시, 「근대 일본의 히데요시 영웅 만들기」, 정두희·이경순 엮음,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165~187쪽.

미야지마 히로시, 「근세일본의 조선인식」, 『동아시아의 지식교류와 역사기억』, 동북아역사재단, 2009, 233~250쪽.

박희병, 「조선의 일본학 성립」, 『한국문화』 6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2013, 179~219쪽.

管寧, 「許儀後事迹考略」, 『江西社會科學』, 1992年 第4期, 中國社會科學院, 1992, 87~94쪽.

鄭潔西, 「秀吉の中國人說について」, 『或問』 14호, 近代東西言語文化接觸研究會, 2008, 155~164쪽.

鄭英實, 「18世紀初頭の朝鮮通信使と日本の知識人」, 荒武賢一朗, 池田智恵 編, 『文化交渉における劃期と創造』, 大阪: 關西大學文化交渉學教育研究據點 次世代國際學術フォーラムシリーズ, 第3輯, 2011, 65~91쪽.

## Accumulation of knowledge about Toyotomi Hideyoshi during Late Choson Period

Park, Sang-hwi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process of awareness formation and knowledge accumulation about Toyotomi Hideyoshi in the records of literary scholars who had been to Japan as Korean emissaries. Within Choson, there was a very weak understanding about who was Hideyoshi. On the other hand, the Choson literary scholars who had been to Japan as emissaries and those literary writers who were living in Japan as prisoners very well knew about who was Hideyoshi and how did the Japanese perceive him. This paper diachronically investigated as to how the understanding about Hideyoshi was formed by examining ‘Sahangrok’ (diaries written by Korean emissaries to Japan) in time-line sequence.

Firstly, this paper looked into the formation process of positive awareness about Hideyoshi. Above all, they recorded that there were Japanese who applauded the political contribution of Hideyoshi as he had united Japan and had a strict governance over it. It was discovered that after Hideyoshi died, the Japanese built a shrine for him and apotheosized him as a god. Also, the emissaries held in high esteem the political contribution of Hideyoshi and compared him with Xian YU; the first Qin Emperor.

Secondly, this paper examined the negative understanding about Hideyoshi. The emissaries who experienced Japan during the reign of Toyotomi described that he was significantly a tyrant and that Japanese too hated him. They recorded that even during the Edo period, Japanese were still having resentment against the harsh political regime of Hideyoshi and Japanese themselves thought that Choson invasion by Hideyoshi was wrong because the Japanese subjects had also suffered pain due to it.

Thirdly, this paper checked the knowledge accumulation process about Daibutsu

temple that was built by Hideyoshi for setting up a huge Buddha statue. There is Mimi-zuka (The Ear Mound; a burial site of the nose and ears of Choson people cut during Choson invasion by Japan) just in front of this temple and in the year 1719, the emissaries rejected the Japanese proposal of holding a party at Daibutsu temple. After this incident, the emissaries minutely researched about what kind of place was Daibutsu temple. Won-Jung geo sharply pointed out the religious practice of Japan in which Shinto religious worship was carried at Daibutsu temple.

There could be a considerable knowledge accumulation about Hideyoshi through the experiences of emissaries in Japan and accordingly, the perception about Japan also changed. Initially, the emissaries were seeing Hideyoshi as ‘An enemy with whom one cannot live under one sky’ but gradually as the knowledge about Hideyoshi increased, he was perceived with a comparatively colder approach.

keywords: Toyotomi Hideyoshi, The Korean Emissary, Daibutsu temple, Sahangrok, Mimi-zuka

접수일자: 2014. 9. 30.  
심사기간: 2014. 10. 1. ~ 2014. 11. 10.  
게재결정: 2014. 11. 10.